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어를 노래로 만든 '선법가'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는 출 · 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엄했다.



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이 선법가 '서천의 푸른나무'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 · 동요메들리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본원 청년합창단의 공연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

대행 선사 법어, 노래되어 법계 장엄하다

한마음선원, 선법가 40주년 기념 음악회

안양=신중일 · 김민재 기자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어를 노래로 만든 '선법가'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는 출·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엄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24일 경기 안양아트센터에서 '선법가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선법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서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안양 삼막사 주지 탄묵 스님,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과 최대호 안양시장 부부, 김학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본지 발행인),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국내지원장 스님,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 이동복 안양본원 신도회장,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행 선사 원력서 시작된 음성포교 40년

'선법가(禪法歌)'는 대행 선사의 뜻을 받들어 안양본원 어머니 합창단이 1984년 창단되면서 시작됐다. 1994년 거사 합창단이 발족되며 한국불교 음성 포교의 새 전기를 이룰 기틀을 세웠다. 대행 선사는 세계를 다니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감로법을 전했고, 선법합창단은 이에 함께 하며 음성공양으로 법석을 장엄했다. 또한 선법합창단은 각종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선법가를 통해 한마음의 도리를 전파했다.

'선법가'는 한마음선원만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대행 선사의 법어를 합창을 통해 되짚고 마음으로 돌려보는 수행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음악회도 '선법가'가 시간과 세대를 넘어 어떻게 대중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법가를 노래라고 하지만, 자꾸 부르면 지극하게 염원하는 관이 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요'라고 말씀하신 선법가 가사처럼 모든 인연과 화합하며 관하는 도리를 실천하는 선법합창단이 대행 선사의 법음을 잘 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진용 선법 거사합창단장은 "선법가라는 대행 선사 말씀을 노래로 제작해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는 노래가 아니라 큰스님의 법문을 대신 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선법가 합창은 수행과도 같다"면서 "오늘 음악회도 대행 선사가 만드신 선법가를 사부대중에게 선보인다는 의미로 준비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연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안양아트센터서 개최
법산 스님 등 2000여 대중 참석
2시간 여 동안 환희의 법석 펼쳐
1984년 대행 선사 원력으로 창단
대행 선사 법어 담은 선법가 공연
"선법가 합창도 일상 속 佛法수행"

노래된 禪法, 시공, 세대를 넘다

이날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대행 선사 오디오 법문을 바탕으로 펼쳐진 최은희 안무가 창작무 '진(進)'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 60여 명이 선법가 '서천의 푸른나무'를 합창했다.

선법합창단은 '한 시루의 대중이여'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반야심경〉 의미를 전했다. 선법보살합창단에서 은퇴한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한뿌리 합창단은 '무시일종가'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를 통해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했다.

한마음선원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있었다. 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 '대장부' '모두에게 감사해요'와 동요 메들리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본원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말 그대로 '청년'의 에너지로 채워졌다. 선법가 '원통 속을 벗어나려면2'를 합창한 청년합창단은 그룹사운드 '송골매'의 '모여라'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합창단이 편곡한 버전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밴드 연주와 춤, 안무가 함께 한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듯 했다.

2부 공연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지원 연합 선법합창단은 선법가 '정신 발전의 길'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을 선보였다. 본원 거사 합창단은 대중가요 '바람의 노래' '우리는'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합창 솜씨를 뽐냈다.

초청 가수의 무대들도 빛을 발했다. 1부에서 선법가 '공무가'와 '아름다운 나라'를 선보인 국악인 하윤주는 2부에서도 선법가 '나 하나 꽃 피어'를 본원 보살합창단과 함께 선보였다. 국악인 김수인은 보살합창단과 선법가 '깊은 물 돌고 돌아'를, 솔로로 '쑥대머리'를 공연했다.

공연의 피날레는 선법합창단의 무대가 장식했다. 선법합창단은 이날 음악회를 위해 새로 작곡된 '물에서 맑은 물 찾기 어렵고'를 초연했고,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 앵콜 공연까지 선보이며 40주년 기념음악회를 회향했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대중은 세대를 뛰어넘어 대행 선사의 법어를 되새길 수 있는 환희의 법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무겸(공군군악대, 22) 씨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오늘 어머니가 합창에 참여하셨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간 세대 전승의 현장도 만날 수 있었다. 남동생이 어린이합창단원으로 참여한 조예령(11) 양은 "어린이합창단이 부른 '대장부'가 뭉클했다. 동생이 단원으로 합창해서 더 기뻤다"고 밝혔다. 아버지 조은철(39) 씨는 "그동안 아이가 힘들게 연습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오늘 무대에 선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한마음선원에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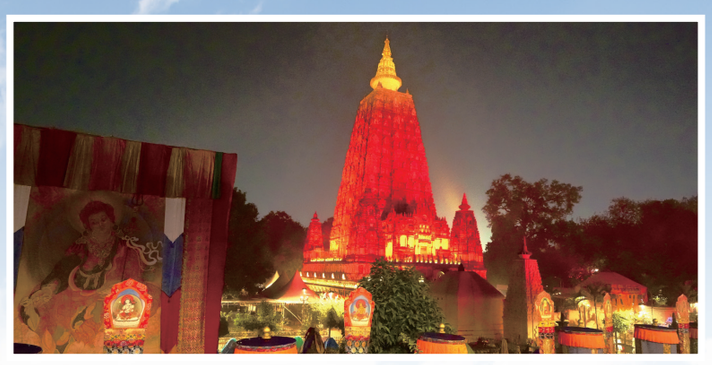
▶ 동참금 : 270만원 특별할인가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3월 04일 출발 ~ 3월 14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3월 24일 출발~3월 28일 도착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교토시내 숙박
▶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아라시야마 천룡사–동사–삼십삼간당–천태종 본산 연력사–나라 동대사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 동참금 : 19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4월 1일~8일(6박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10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
3월 22일~3월 26일(5박 6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 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 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